



# 도서관은 국가와 국민의 행복발전소, 그 발전 전략과 실천자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장우권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정책위원회 위원장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wk1961@jnu.ac.kr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승리하는 법칙과 준비된자의 행복을 얻었으며,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쓰디쓴 패배를 낳는다는 자연의 숭고한 법칙을 얻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강인한 끈기와 자랑스러운 두레정신, 창의적 발상을 잃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활짝 핀 무궁화의 끈기, 그리고 11명의 아름다운 두레정신, 감독과 선수들의 창의적 발상은 없었다. 누구를 닮고 벌하겠는가.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 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비단 스포츠에만 국한 할 것인가. 온 나라가 ‘세월호’, ‘군대 총기사건’ 등으로 시끄럽고 국론이 분열되고 그 결과 국민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다.

또한 6.4 지방선거는 끝났으며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승자는 패자를 아우르고 패자 또한 승복의 미덕으로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잘해보자는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려운 때에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한국인의 정신을 일깨우자. 다시 강인하고 굳건한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 기저에는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에는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 실패했을 때 재기하는 법,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 힘들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 승리와 기쁨 그리고 고난을 나누는 법, 새로운 것을 발상하고 만들어 내는 법 등을 알려주는 동서고금의 아름다운 지식의 보물들인 책과 이 보물들을 세상에 내놓고 모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아름다운 사서

(Librarian)가 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실천하는 장이 도서관이며 도서관은 국가와 국민의 행복발전소이다. 따라서 도서관 발전전략과 실천자로서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국가와 지역발전의 중심이며, 도서관 정책은 중앙정부만이 아닌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며 정보-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심기관이다. 이를 위해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통해 그 역할이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 즉 좋은 도서관을 가꾸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좋은 도서관은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도시와 지역을 보장한다. 첫째, 좋은 도서관은 건강한 지식정보생태계의 베이스캠프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사회에서는 지식정보와 문화의 역량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국민 모두가 공유하여 상상력과 창조로 이어져야 국가와 지역경쟁력이 강화된다. 둘째, 좋은 도서관은 지구촌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갖춘 타임캡슐이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이트웨이이다. 도서관은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 온 지식정보의 보고이며, 세계의 지식정보를 이어주는 곳이다. 셋째, 좋은 도서관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평생학습의 장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 문화생활의 중심기관이다. 넷째, 좋은 도서관은 학교 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의 원천이며 국민들에게 자주적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다섯째,

좋은 도서관은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배우고 나누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생활공동체문화를 창출한다. 여섯째, 좋은 도서관은 지식정보와 문화복지 그리고 교육복지의 기관으로 국민의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다.

그래서 좋은 도서관이 필요한데, 우리의 현실은 매우 참담하고 슬프다. 첫째, 도서관장서의 부족이 지적 갈증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장서량이 부족하고, 최신성이 담보되지 않아 양질의 신간장서 확충이 필요하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는 1.53권으로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UNESCO의 2010년 최저기준 2~3권, 미국 2.62권, 일본 3.13권에도 훨씬 못 미친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대비 자료구입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2008년 11.7%→2012년 10.6%). 둘째, 부족한 도서관수,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다. 2012년 기준 공공도서관은 828개관이며,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61,531명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39,813명, 2011년), 미국(34,493명, 2010년), 영국(14,826명, 2011~2012년), 독일(10,060명, 2011년). 셋째, 사서중심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지식정보서비스의 멘토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이 국제수준에 매우 미달이다. 사서(사서교사) 1인당 봉사대상 인구는 공공도서관 14,716명, 학교도서관 9,917명으로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사서직원 1인당 최저 2,500명 보다 훨씬 많다. 더불어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직원수 및 사서직원수가 200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정규직원수 : 2008년 평균 9.9명 → 2012년 8.9명, 사서직원수 : 2008년 평균 4.5명 → 2012년 4.2명). 문화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중 1관당 직원수가 가장 적은 곳이 바로 공공도서관이다. 넷째, 도서관시스템의 후진성이 편리한 이용과 신속한 접근을 막고 있다. 이용자 계층별 특화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미흡하다. 지식취약계층(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체계적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 넷째, 도서관인프라(시설, 장서, 사서 등)의 부족과 부실로 지역 및 계층간 지식정보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별 도서관에 대한 투자에 편차가 있어 지역별 도서관인프라 격차가 심하다. 다섯째, 도서관행정체계의 이원화가 세금낭비와 비효율의 결정적 동인이다. 2012년 기준 828개관 중 교육청운영 232개관, 지자체운영 576개관, 사업운영 20개관

으로 운영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이용불편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관리주체 이원화와 지자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및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예산과 인력 부족 및 권한 부재로 지역 내 협력체계 구심점 역할이 미흡하다. 여섯째, 사회지도층의 인식부족과 인기영합적 접근이 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과 중요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도서관의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수준향상이 필요하다. 도서관이 건립되어도 장서와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위주의 건립 정책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일곱째, 마스크와 시민사회의 무관심이 좋은 도서관을 통한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도시의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마스크와 시민사회가 정치, 경제적 기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요 언론사의 도서관 진흥과 발전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고, 이를 통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률 증가와 독서진흥이 필요하다.

따라서 좋은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서가 풍부한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 장서중심의 평생학습과 독서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서직 전문가(사서와 사서교사) 주도하는 선진형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넷째,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좋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접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단위로 통합형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이용서비스의 편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여섯째,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공간을 제공하여 소통과 공감하는 생활공동체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일곱째,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창의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도서관 운영 및 이용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여덟째,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역할,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월드컵의 아픔도, 세월호의 아픔도, 총기사건의 아픔도 치유되고 준비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지역과 국가, 글로벌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발전, 행복의 기저에는 도서관과 전문인력으로서 사서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과 전략, 그리고 행·재정적 제도와 실천의 역량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마인드와 리더십에 있다. ●

※ 위 칼럼은 2014년 5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서관정책 제안서를 일부 발췌, 요약 하였습니다.